

위기 산업 고용안정 132억원 투입

전북도, 위기 기업 지원해 경쟁력 확보·근로자 고용유지·성장 투트랙 전략 올해 362개 기업 지원 1858명 고용 창출 목표... 지난해 1828명 고용 창출 성과

전북도가 지난해 전국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비 105억원을 포함한 총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개 프로젝트 11개의 세부사업 추진으로 도내 362개 기업을 지원해 1,858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12개 혁신기관이 참여해 세부 사업별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투트랙 전략으로 움직인다.

위기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성장을 통한 위기 근로자 흡수 전략이다.

도의 경우, 초기에는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점차 고용성장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위기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직(예정)자를 이·전직 재배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인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형 친환경 특장차 등 자동차 신기술 산업에 대해 성장 지원으로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위기 근로자 흡수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 운영, 고용안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위기 근로자를 발굴해 여건에 따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필요 사업을 각 프로젝트 간 연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별 추진 지원사업은 사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참여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간 급여격차 해소를 위해 전직 정착지원금도 함께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제조업 연쇄 도산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해 전국 1위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는 코로나19 약재 속에서도 136억원 투입해 1,82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용 위기산업과 신산업 성장, 위기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 본격 운영

13개 시·군·16개 마을 65가구 목표... 부안 청호수마을 시작으로 준비된 마을별 시행

전북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이하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13개 시·군, 16개 마을에서 65가구를 목표로 3월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부안군 청호수마을이 5가구 8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해 5일 관계자들과 간소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체험 및 영농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47가구 6명이 무주군 솔다박



전북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북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도는 부안군 청호수마을이 5가구 8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해 5일 관계자들과 간소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마을에 5일 입주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다른 마을도 참가자가 최종 선정되면 참가자와 입주시기

등을 협의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5대 사회혁신 R&D 분야별 중점과제 발굴

도,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 창출·지역 성장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

전북도는 정부의 R&D 중장기 투자·강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기술 중심의 R&D 기반에서 실생활의 공공혁신기술과 도내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혁신 R&D로 확대 추진하는 5대 사회혁신 R&D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5일 송하진 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 이송인 센터장, 도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5대 사회혁신 분야별 R&D 추진계획, 분야별 대표 발굴과제 등을 보고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R&D가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역할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분야 R&D 투자 확대정책

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사회혁신 R&D 종합계획 수립이 추진됐다.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민이 체감하는 R&D 효과 창출과 과학·산업·사회혁신 연계를 통한 지역 성장을 목표로 5대 사회혁신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도는 3대 추진전략으로 ▲사회혁신 분야 R&D 추진체계 구축, ▲사회혁신 공공 D·N·A 융합기반 조성, ▲사회혁신 성과창출 및 도민체감도 제고를 제시하고, ▲스마트의료, ▲정정환경, ▲재난안전, ▲교통·물류, ▲문화·관광·콘텐츠의 5대 사회혁신 분야별 중점과제 40건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북 R&D 혁신방안' 마련을 계기로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5대 사회혁신 R&D 종합계획 수립 및 도내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 기술소사를 거쳐 실용화가 가능한 R&D사업들을 발굴함에 따라, 향후 전북도과학기술위원회 사회혁신 분야 개편 및 실효성 있는 R&D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정부 R&D 예산 확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존 R&D와 달리, 사회혁신 R&D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혁신적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환적 시도로, 도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발굴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전북도의 R&D 혁신역량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역대 최다 신규지구 선정

전북도가 2021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배수개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조사 9개 지구와 신규 착수 9개 지구 등 총 18개 지구에 국비 2,004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영농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과 농촌지역 농업·생활용수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수원공을 개발하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다.

올해 기본조사 지구로 확정된 9개 지구(860억원)에 대해 위탁조사 수행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함께 1년 이상

소요되는 조사기간 단축과 현지 주민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착수 9개 지구는 조기 사업추진과 완공 시 농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에 유리한 만큼, 연내 면밀한 현지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초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에 진안 머위나물 선정

전북도가 5일 진안군의 머위나물을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사업'의 첫 주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개최된 선정심사 평가회는 6차산업, 가공·유통, 영양·소재, 기능성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의 평가와 컨설팅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세부 사업계획과 성과목표의 적정성, 나물 산업화 가능성, 재정 투자계획 등의 세부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 대상자를 진안군의 '머위' 나물로 선정했다.

진안군의 머위나물은 고원지대의 친환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향면의 머위 작목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생산체계 조성, 지역 농산물가공업체를 활용한 6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진안농협조공법인 등을 통한 유통체계 구축, 농길머위특화마을을 지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도는 진안군의 머위나물을 시작으로 각 시·군의 지역적 자원과 농가 수요 등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한 대표나물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당 3년 동안 20억원, 14개 시·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8년간 2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해와 내년에 1개 시·군에 1품목씩 육성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2023년 이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해 3개 시·군씩 추진한다.

아울러, 심심산골 나물산업 통합브랜드 및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을 전담관리 기관으로 지정·운영해 홍보와 마케팅 지원으로 전북 나물산업의 성장 발판구축을 위한 육성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첫 주자인 진안군의 귀농인, 청년, 여성농업인을 우대, 소그룹 협업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공동작업과 시설 규모화로(수막재배, 스마트 기술점목 등)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농촌융복합프로그램을 연계한 나물특화마을을 조성으로 다양한 체험,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 도농 교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진안군은 동향면에 '농길 머위특화마을'을 조성해 농촌 체험 교육장, 농

가 맛집, 약초 카페, 민박 운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익산·김제·완주 선정

전북도는 교육부의 '2021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7,1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181개 지자체 중 54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최종 선정된 15개 지자체 중 도는 3개 시·군이 선정됐다.

익산시는 원광보건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평생교육 뉴미디어 온라인 역량강화 사업, 김제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연계한 지역형 로컬-MOOC 구축 사업, 완주군은 농업인구 맞춤형 비닐하우스 제작기술 교육 사업으로 높아진 도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